

# 섬진강 재첩채취 권역 다툼 심상찮다

### 하동 어민들 섬진강 철교 중심 광양 채취 구역 침범

### 광양 어민들 지키기... 전남도·광양시에 분쟁 해결 촉구

섬진강 재첩 채취구역을 둘러싸고 광양과 하동지역 어민들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7일 광양 어민들에 따르면 20여일 전부터 하동지역 어민들이 섬진강철교를 중심으로 재첩 채취구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어민들은 최근 하동 광역지역의 재첩양식 면허가 소멸됨에 따라 광양

어촌계가 마을의 지선을 찾기 위해 측량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하동 광평 어촌계는 측량한 뒤 지척도를 참고로 광양쪽 섬진강쪽까지 자신들의 재첩 채취구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구역을 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광평 어촌계는 측량 이후 광양어민

회에 지선 양보를 요구하며 기존 구역보다 30여m 지점에 말목을 박고 자신들의 영역임을 표시하고 재첩 살포행사까지 강행했다.

이에 광양 월길리 어민들이 말목을 뺏고 기존 채취구역의 침범을 경고하고, 구역관리 및 지키기에 나섰다.

그러나 광양시는 오래전부터 있던 양 지역간 분쟁이라며 적극적인 해법을 찾지않고 있어 어민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양 기관이 만나서 측량한 후 도계를 재결정해야 할

사안이다"면서 "수 십년 전부터 분쟁이 있어 전남도와 협의후 명확한 측량을 통해 채취구역을 정하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광양 어민들은 전남도나 광양시가 나서 새로운 도계 협의와 재첩양식 관리구역 분쟁 해결에 나서줄 것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섬진강은 1993년 월길리 어민들이 당시 전남과 경남의 도계로 새마을 양식계 관리구역을 배정받고 20여 년간 재첩 채취를 해 오던 곳이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순천 낙안마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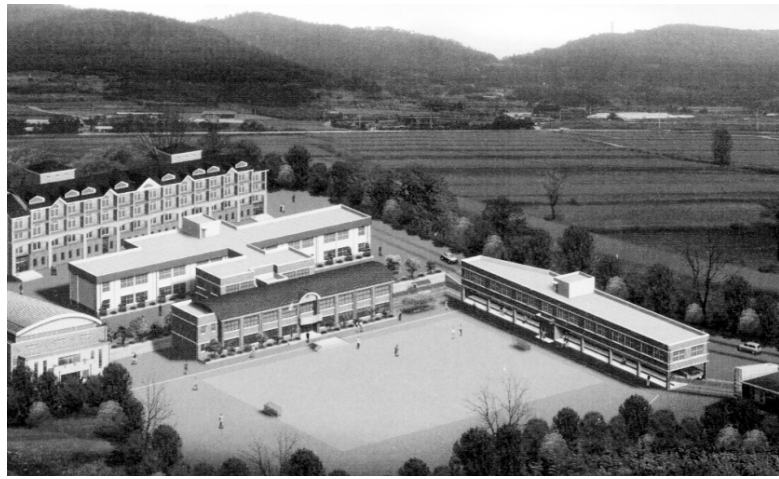
순천시는 낙안면 수변구역 9개 마을 마을회관(경로당)에 '저탄소 녹색 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한다. 순천시는 "지난해 영산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응모 선정돼 1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고 17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생산된 전력을

한전으로 보낸 만큼 전기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햇빛을 따라 움직이는 추적식 5개소, 고정식 4개소로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낙안면 수변구역 9개 마을 201세대 620여 명의 주민에게 전기료 절감 등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생태도시 순천 포럼

### 내일 에코그라운드호텔

순천시는 19일 오후 2시 에코그라운드 호텔 컨벤션홀에서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열어갈 산업육성 전략'이라는 주제로 생태수도 순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정원박람회를 1년여

앞두고 정원박람회 성공개최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열린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덕립 정원박람회 조직위 사무국장의 추진현황 보고와 김병일 순천대 교수(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단장)의 '성공하는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회가 열린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 곡성에 전교생 기숙사 생활 특성화고

### 내년 3월 9학급 규모 개교

내년 3월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구 목사동면 초등학교 부지에 '전남 미래형 특성화고등학교'가 문을 연다. 현재 학생생활관 신축이 한창이며 9학급(180명) 규모다. 곡성군은 학교 개교시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 인구가 늘고, 급식실 등 학교시설 관리 등에 군민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운영중인 학교가 없는 목사동면에 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주민정서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 여수 여자만 낙조보며 추억만들어요

### 사곡서 29~30일 노을축제

아름다운 여자만을 배경으로 붉게 물든 노을과 함께하는 '제4회 여수 여자만 갯벌노을축제'가 오는 29~30일 소라면 사곡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바다, 노을, 갯벌' 그리고 여자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자연과 사람이 숨쉬는 여자만의 독특한 바다체험과 다양한 볼거리로 꾸며진다.

이번 축제는 풍어제와 해상 퍼레이드 등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농악·포바공연, 유명가수 축하공연, 노을가요제, 소망풍선·쪽지날리기, 사진 전시회, 색소폰·풍기타 공연, 비보이·난타, 백일장 시상대회 등이 마련된다.



또한 개매기, 새고막·바지락 캐기, 머드 체험, 맨손 고기잡이, 뽕배 타기, 황금조개를 찾아라, 섬 보물찾기 등 각종 체험행사가 이어진다.

여자만갯벌노을축제 임채도 추진위원장은 "올해는 머드체험 등을 추가해 지난해에 비해 내실을 기했다"며 "여자만의 아름다운 해안경관과 노을, 청정 갯벌 등을 배경으로 독특한 체험과 감동이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여자만 갯벌(2640만㎡)은 지난 2003년 연안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2005년 국도해양부부 부터 갯벌상태가 가장 좋은 곳으로 관정받는 등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은 곳이다.

/동부취재본부=김청희기자 chkim@

## 쫄득한 벌교 꼬막의 참맛 느껴보세요

### 28~30일 벌교 꼬막축제

벌교에서 꼬막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린다.

벌교꼬막축제 추진위원회(회장 강복수)는 오는 28~30일 3일간 벌교 제일고 특설무대와 대포리 갯벌 일원에서 '제10회 벌교 꼬막축제'를 개최한다.

'청정갯벌과 살아 숨쉬는 문화속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꼬막잡기·꼬막가기·꼬막삼고 시식하기 등 다채로운 꼬막 체험행사와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를 가족과 함께 문화기행할 수 있는 테마축제로 진행된다.



28일 농악놀이로 시작으로 지역의 특산물을 모아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대형 꼬막화합 비빔밥을 만들어 시식하고 민속 율놀이·포바공연·국악마당·꼬막 노래자랑 등 음민 화합행사가 열린다.

벌교꼬막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10회째를 맞아 양질의 특산물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에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에 성장점을 두고 가족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체험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윤성기자 kim0686@

## 전 북

## 군산 세계철새축제

## 내달 16일 금강호서 개막

'군산 세계철새축제'가 다음달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인 금강호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탐조투어와 백일장대회, 각종 공연, 장터 등의 행사가 열린다.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인 탐조투어에서는 해설자의 설명을 들으며 금강호의 다양한 철새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행사다. 가족단위로 금강의 철새들을 관찰하고 가창오리의 화려한 군무를 현장에서 볼 수 있다.

또 금강호변 캠핑카에서 숙박하며 새벽 물안개 사이로 철새들이 날아드는 모습을 관찰하거나, 천연기념물 제201-2호로 지정된 '큰고니'가 수면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멋진 광경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철새 그림 그리기 대회와 철새백일장 대회를 비롯해 철새골든벨 행사 등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전 세계적으로 생존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큰 오리를 비롯한 큰고니, 저어새, 흰뺨검둥오리, 쇠기러기, 재갈매기, 검은머리갈매기 등은 10월 중순부터 금강호를 찾아와 겨울을 난다. 이들은 이듬해 3월초에 번식지인 시베리아 지역으로 다시 올라간다.

군산시 관계자는 "전국 자치단체마다 축제가 난립하고 있지만 철새축제는 자연 생태계를 배경으로 한 축제인 만큼 가족과 함께 즐기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남원시장·순창군수 재선거 치열

### 남원 3명·순창 2명 등록

10·26 재보궐 선거를 9일 앞둔 가운데 남원시장과 순창 군수 재선거에 뛰어난 후보자들이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남원시장에는 이환주(50·민중당)·김영권(64·무소속)·최종근(71·무소속)씨 등 3명이, 순창군수에는 황숙주(64·민주당)·이흥기(65·무소속)씨 등 2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남원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는 지난 16일 이른 아침부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청 앞 도로와 전통시장 등을 누비며 선거전을 펼쳤다.

민주당 이환주 후보는 16일 오전에 향교동 선거사무소에서 출정식을 한 후 남원시청 앞과 인월시장에서 첫 유세를 열어 "남원의 현안을 해결하려면 젊고 패기 있는 후보, 행정 경험이 풍부한 후보, 두터운 인맥을 가진 자신이 시장 적임자"라며 표심을 공략했다.

무소속 김영권 후보는 같은날 오후에 출정식을 갖고 "낙후된 남원 발전을 위해 '새 판'을 짜겠다"며 참패된



남원 경제를 살리고 서민 생활을 먼저 챙기는 시장이 되려고 지금이 순창 사측생의 각오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최종근 후보는 인월면 터미널에서 첫 유세를 하고 "훼손된 남원시민의 자존심과 명예회복은 물론 행정공백을 최소화해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자신을 쏟아낼다"고 호소했고 오후에는 출정식을 했다.

또한 순창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황숙주 후보는 16일 오전에 북정리와 구립·인계를 찾아 유세를 펼쳤다. 황 후보는 "순창은 경제자립도가 낮고 인구 감소와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경제가 침체됐다"며 실용적인 농업정책과 상공인 지원을 펼쳐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같은날 오후 6시30분에 교육청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무소속 이흥기 후보는 16일 오후에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읍내 터미널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갖고 "이번 선거는 개인 누구의 당락 문제가 아니라 순창의 미래와 과거의 한판 승부"라며 앞으로 순창이 가야되는 목표는 군민이 주인되는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평가가 없는 순창, 군민이 잘살고 상대적 빈곤이 없는 순창을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익산 4선거구 보궐선거에는 민주당 김연근, 민노당 김경철, 무소속 임택 후보 등 3명이 등록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이동희기자 bs8787@

## 뉴스 브리핑

### 전주시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대통령상

전주시가 지식경제부 주최의 '제13회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에서 지방자치 단체부문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 오는 20일 서울 강남구 COEX홀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전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디자인 정책이념과 전략, 디자인 경영활동, 디자인 경영성과 부문 등 주요 항목에서 최고점수를 받았다. 특히 다양한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이 가능한 공간, 일상적 차원의 가치에 주목하고 디자인을 통해 이를 실현시킨 '아트 폴리스' 주요사업의 성과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김제시·축산과학원 양계농장 경영컨설팅

김제시는 최근 농촌진흥청 국립 축산과학원과 지역 양계농가 50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경영컨설팅을 펼치기로 협약했다. 시와 축산과학원은 양계농가에 대한 기술수요를 파악하고 경영, 닭 개량, 사양 관리, 친환경성 살환경 구축, 가축질병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들 도대를 양계농가에 대한 경영진단과 문제점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해줄 계획이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전국의 축산농가 2000곳을 선정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성기자 hnews@

### 정읍 차재배농 자생차 산업발전 세미나

'제7회 정읍 자생차 산업발전 세미나'가 지난 14일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차 관련 단체회원, 차 재배농업인, 차문화 협의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읍 자생차 소비촉진방안 ▲정읍 자생차 재배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등 주제논의가 발표됐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모든 차재배농가가 무농약 친환경재배로 유기농 인증을 받아 타 지역과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고창 '도산리 고인돌군' 정비 완료

고창군은 지난 6월부터 4개월에 걸쳐 사업비 9900만원을 투입해 탁자식 고인돌로 유명한 '도산리 고인돌군'(고인돌 유적 6코스)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군은 지난해 도산리 고인돌군 주변 토지매입후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인돌 축조당시에 맞게 지형을 복원하고, 테크와 주차장 등 관람객 편의시설을 마련했다. 한편 고창지역 447기의 고인돌은 지난 200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전북취재본부=윤창영기자 young@

## 법률·세무·회계 등 시민 불편 해소

## 군산시 무료민원상담실 인기

군산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궁금한 사항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 단방의 장소에서 '무료 종합 민원상담실'을 연중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 분야는 법률, 법무, 소비자 고발, 세무·회계 상담 4개 분야이다. 상담시간은 ▲법률상담 매월 2·4째주 월요일(오후 5~6시) ▲법무상담 매주 화요일(오후 4~5시) ▲소비자 고발상담 매주 수요일(오후 2~3시) ▲세무·회계상담 매주 목요일(오후 2~3시)이다. 군산시는 9월 현재 종합 민원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법률상담 17회 17건 ▲법무상담 33회 30건 ▲소비자고발 상담 36회 34건 ▲세무·회계상담 37회 41건 등 총 123회 122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김제 '대한민국 농업수도'로 만든다

### 市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김제시가 '대한민국 농업수도'를 농업·농촌 발전의 비전으로 정했다. 김제시는 지난 4월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 시민토론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17일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은 향후 10년간 김제시 농업정책의 방향과 기틀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다.

이번 발전계획안에는 ▲작목별 육성전략 ▲농부촌 프로젝트 ▲로컬푸드 활성화방안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운영 ▲농산물 유통 활성화방안 ▲가칭 '지역 활력센터' 설치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김제살림마을 발

굴 및 육성 방안 등 농업 전반에 걸친 중장기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단위사업들이 제시됐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이번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해 맞춤형 기획농정을 구현하는 등 '농업 일번지' 위상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성기자 hnews@